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 3 강 (김민지)

Epic History Lecture 3 by Kim Min-ji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신앙과 문화

(Faith and Culture Centered on Heavenly Parent)”

Translated by: Motomi To

First Edit by: Kanna Ogurie

00:00:14:26 - 00:00:59:36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민족 대서사시는 참어머님께서 지난 여름에 이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희 지금 학교에 UPA 생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도들이 여러 국가가 있어요, 생도들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유럽에서 온 한 생도가 제가 구체적인 이름, 어디 국가 얘기하면 아실까 봐. 유럽에서 온 생도가 한 명 있는데 그 생도가 저한테 하루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민족이 왜 선민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I would like to share a few words. The *Epic History* was something that True Mother asked us to undertake last summer, so we went through various stages of work to bring it to completion. Currently, as you know, we have UPA cadets at our school, don't we? These cadets com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Among them, there's one cadet from Europe—I won't mention specific names or countries in case it becomes too obvious. There was a cadet from Europe. One day, that cadet came to me and said, "No matter how much I thought about it, I could not figure out why the Korean people became the chosen people."

00:00:59:45 - 00:01:37:59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죠, 그죠. 유럽은 기독교 국가. 그 학생이 그 기독교, 굉장히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국가 출신인 학생인데 왜 한민족이 선민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막 연구를 해봤는데 자기 생각에는 DNA, DNA 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 한 민족이 DNA 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런 것을 연구한 무슨 외국의 자료가 있습니다.

I thought, "Ah, that's understandable." Europe is a Christian nation. This cadet, being from a nation with such a deep Christian background, said, "Why are the Korean people considered the chosen people? No matter how much I think about it, I can't figure it out." So, I said, "Yes, I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Then the cadet said, "I did a lot of research, and in my opinion it has something to do with DNA." You all know what DNA is, right? There was a foreign material that analyzed the genetic similarity within the nation.

00:01:38:00 - 00:02:12:11

영어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면 한국이 가장 DNA 일치도가 높은 국가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민족적인 그런 혈통을 잘 지켜왔다. 그걸 자기가 막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약간.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학생한테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라, 더 연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는 이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According to this English material, Korea has the highest DNA homogeneity among its people. What that essentially means is that Korea has preserved its ethnic lineage exceptionally well over a long period. The cadet shared this with me, wondering if that's the reason behind Korea's distinct cultural identity. I responded, "I'm not sure that's entirely correct," but I still encouraged the cadet to research further and dig deeper into the topic. From our perspective, the reasons for this belief are likely rooted in other, more significant aspects

00:02:12:24 - 00:02:51:47

또 이 강의는 사실 어머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많이 들어와야 보편적으로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참부모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한민족이 선민으로 선택되고 준비되어 왔던 것이고 참부모님 오신 뒤에는 이제 축복가정들이 이제 참부모님을 모시는 축복가정들이 전부 다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02:51:47 - 00:03:34:57

This lecture is, in fact, based on content that True Mother has personally shared with us, step by step. Since this material is rooted in her words, there are aspects that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perspectives of people in other countries. I think that those aspects need to be incorporated in order for the discussion to be more universal. One significant concept we emphasize is that the Korean Han people were selected as the chosen people and prepared by Heaven to send the True Parents. And after the arrival of the True Parents, all blessed families who accept and attend the True Parents have also become the chosen people.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부모님 보내시기 위한 선민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축복받아서 여러분들 다 참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부모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축복가정들이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민족을 선민이라고 선택하셨던 그 하늘부모님의 뜻,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축복가정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축복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상속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Thus, they were the chosen people in order to send the True Parents, and following that, all of us who have received the Blessing now call the True Parents "Our Parents," don't we? In this sense, every blessed family that recognizes the True Parents as their parents is also part of the chosen people, this is what I think. Th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will of Heavenly Parent, who chose the Korean Han people as the chosen people, we need to know what that will is. Only then will it become clearer what we, as blessed families, should educate our children on and what core values we should pass on to them as we talk about our identity as blessed families.

00:03:35:02 - 00:04:08:42

그게 무엇인지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과 다 축복받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축복가정들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한 우리 축복가정의 정체성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한민족이 어떤 신앙, 어떤 문화를 가지고 왔는가, 그런 것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This does not mean we should all get blessed to a Korean, but rather, it's about what we as blessed families think is most important in terms of our identity within our families. If we think about that together, it might be an interesting reflection. The topic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the faith and culture that the Korean Han people have inherited, this lecture will introduce that.

00:04:08:46 - 00:04:49:27

한민족이 신앙적으로 보면 아까 아마 안연희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대망 사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망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한민족이 종교심이 되게 많아서 종교를 잘 믿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망 사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이야기로 얘기하면 대망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I believe Professor An Youn-hee has probably explained it in detail earlier. In terms of faith,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ople is "Daemang Sasang (Great Hope Theory)." What is the "Great Hope Theory?" All Korean Han people have had a deep religious spirit and have been a people who believe strongly in religion. No matter what religion has entered Korea, the "Great Hope Theory" consistently manifests itself. If we are to talk about what is so important about the "Great Hope Theory," it is the belief that the current world is corrupt. And if it's corrupt, a new world will open.

00:04:49:32 - 00:05:32:04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언제 열리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죽으면 새로운 세계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자체가 뭔가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망 사상을 오랫동안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불교의 경우에는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이 나중에 이렇게 세계가 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올 때 오는 부처님이 따로 있습니다.

A new world will open, but when will it open? It's not that you die, go to heaven and enter a new world after death. Rather, the reality of the world we are living in itself will undergo some form of transformation. It's believed this transformation is brought about by the arrival of a new individual. This is the "Great Hope Theory" that the Korean Han people have held for a long time.

In Buddhism, for instance, there is the Buddha, but there is another Buddha who is believed to come to usher in a new world.

00:05:32:16 - 00:06:17:26

그 부처님이 누구냐면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륵불. 그런데 다른 데서도 다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미륵불을 모시는 신앙, 미륵불 신앙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찰에 가보면 미륵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뿐만이 아니고요. 유교에서도 군자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관대하고 박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군자가 올 것이다.

That Buddha is called Maitreya Buddha. Now, while many places worship the Buddha, in Korea, the faith in Maitreya Buddha has developed significantly. This is why, when you visit Buddhist temples in Korea, you'll often see a lot of Maitreya Buddha. This isn't only in Buddhism. Even in Confucianism, there has been a strong emphasis on becoming a wise man. What kind of person is a wise man? It's someone who is generous, benevolent and lives for the sake of others, a person who acts and lives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moral principles. The belief is that such a wise man will come in the future.

00:06:17:33 - 00:06:54:18

군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유교에서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했냐면 우리가 수신이라고 하죠. 그죠. 자기가 양심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서 이 군자가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었다. 그래서 이 군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을 가지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조된 국가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Confucianism considers the existence of a wise person extremely important. So, in Korea, what did Confucianists emphasize the most in this Confucianism? We call it self-cultivation. This refers to striving to live according to one's conscience and continuously working toward becoming a wise

person. So, if there is a country that emphasizes the practice of not only living a very conscientious life, but also being tolerant and loving toward others, it is Korea.

00:06:54:18 - 00:07:33:13

그래서 중국에서 아, 한국은 군자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자가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성인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성인은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같이 얘기하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다 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수용을 하면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In China, they say, "Ah, Korea is a country of wise men" because of how deeply the practice of living as a wise man was emphasized. Those who attained this ideal state of being were sometimes called sages. The concept of a saint is closely tied to the idea of conscience, and there is a well-known saying that such individuals must "live without shame when looking up to the heavens." What does it mean to look up to the heavens without feeling ashamed? It means we have a mission entrusted to us by Heaven, and we should fully accept and live faithfully, fulfilling that mission.

00:07:33:17 - 00:08:14:20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국의 유교가 굉장히 실천적이면서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의 그런 정치 사상의 근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혼란한 시기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과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도 보셨죠. 원리 강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정감록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It means to become a person who lives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Heaven. This idea highlights how, in Korean Confucianism, practical application and moral conduct were especially emphasized. It is said that this became the foundation of Korean political thought. Furthermore, during times of turmoil, certain prophetic texts gained popularity, among which were the Jeonggamnok

(Prophecies of Jeong Gam) and Gyeongnam Yurok (Nam Sago Prophecy). As discussed in the Exposition of the Divine Principle, these texts contain prophecies that, although differing slightly in content, commonly predict the coming of a person called a true person of the Jeong tribe.

00:08:14:24 - 00:08:45:28

지금 이 세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이 오게 되는데 이 성군이 누구냐면 정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우리가 후천 개벽이라고. 이걸 또 다른 말로도 많이 하는데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반드시 그것을 여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더 격암유록도 똑같습니다.

Because the current world is in a state of corruption, the sage-king will come to save it. This savior figure is referred to as the true person of the Jeong tribe. This concept of a new world being opened by a destined individual is known as the "Dawning of the Era After the Coming of Heaven." There are many words for this. When a new world opens, a person will come to lead and usher in that change. This is something that commonly comes from Korean religions. Likewise, the same goes for the Nam Sago Prophecy.

00:08:45:33 - 00:09:36:10

내용은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있는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안 좋은데 이것이 어느 날 새로운 세계로 바뀌게 되는 기점이 있는데 그 때 누가 올 것이다, 성군이 출현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 것이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한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말하자면 이렇게 국가가 바뀔 때가 가장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근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그 기점에서 우리 나라가 한민족이 대응을 잘 못하면서 혼란이 엄청 가중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Although the specific contents vary, many prophecies share the common theme that the current world, which is filled with chaos and turmoil, will one day transform into a new world. At that pivotal moment, a sage-king will appear, become the central figure of the world and open the

path to a new world. A person who will carry out the will of heaven will come. There were many books of prophecy like that. I don't know if you know, but there was something called Donghak (Eastern Learning. If we were to pinpoint the most chaotic time in Korea, it must have been when the country changed, and among those times, there was a time when the Joseon Dynasty ended and a new modernization had to begin. And because the Korean Han people failed to respond well, the confusion got worse.

00:09:36:24 - 00:10:06:30

이 때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서양 문물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의 한국에서 내려왔던 여러 종교 사상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정리한 것이 사실은 동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이 자기가 새로 뭘 만들었다기 보다는 한국에서 내려왔던 종교 사상을 다 정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During this time, Western culture began to enter Korea in large quantities, but they said, "We cannot accept Western culture. We have to do it our way." This gave rise to the religion known as Eastern Learning. Eastern Learning can be seen as a synthesis of the core ideas from various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raditions that had been passed down in Korea. Rather than creating something entirely new, Eastern Learning organized the essential teachings and beliefs of Korea's existing religious thought.

00:10:06:44 - 00:10:38:38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개벽,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개벽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때 선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면 시천주라고 해가지고요 인간과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지금부터 하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동학에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So what is being said here is that a dawning that completely turns the world upside down will happen, and at that time, the Era Before the Coming of Heaven will end and the Era After the Coming of Heaven will begin. And what they are talking about is the ideology "*Sicheonju*



(Serving the Lord of Heaven),” which refers to a world where humanity and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serve and live in harmony with Heavenly Parent. This is what Eastern Learning emphasizes.

00:10:38:43 - 00:11:08:52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랑도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이 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한국 종교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키워드를 말하자면 바로 이런 후천개벽이라는 걸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동학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This is quite similar to our church. If we were to point out a shared keyword among the Korean religions that emerged after this period, it would be the idea of the “Dawning of the Era After the Coming of Heaven.” In other words, they all speak of a new world that is coming. In order for that new world to open, we must live in attendance with our Heavenly Parent in our hearts. This is what we have been talking about with Eastern Learning.

.00:11:08:57 - 00:11:45:23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2 대 교주인 우리 손병희라고 하는 분이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상인데. 이것을 완전히 종교로 만든 것이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천도교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벽사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천개벽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한국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That Eastern Learning was transformed into the religion of Cheondoism (Religion of the Celestial Way) by its second leader, Son Byeong-hui. In other words, Eastern Learning was initially a form of thought, and it was developed into a complete, organized religion called Cheondoism. The core idea promoted by Cheondoism is the “Great Opening” ideology—specifically, the belief in the “Dawning of the Era After the Coming of Heaven” as previously mentioned. One of the key teachings in this context is the concept of “*innaecheon* (Humans are Heaven).” This is considered a very unique Korean perspective.

00:11:45:27 - 00:12:21:37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면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영적으로 우리가 막 영성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직접 하늘부모님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 민족은. 근데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영적으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무슨 성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그런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영적 경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면 하늘부모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As I've studied this subject, one point that frequently comes up is that Korean people can feel Heavenly Parent directly when doing spiritual things. This is what the Korean people think. But in other countries, for example, intense spiritual practice often results in encounters with figures such as Jesus, saints or angels. However, Koreans tend to experience the direct presence of Heavenly Parent after earnest prayer and sincere devotion.

00:12:21:41 - 00:12:51:41

이게 한민족이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한민족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민족은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늘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모님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하늘부모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n't simply because they are Korean Han people, but rather because the Korean Han people inherently have a unique spiritual inclination. They don't perceive meeting Heavenly Parent as something that happens through intermediaries or other beings. Instead, they believe that they can directly experience Heavenly Parent and hear the voice of Heavenly Parent. Because of this strong sense of religious devotion, people are able to have such spiritual experiences. This is precisely why the concept of "Humans are Heaven" is emphasized here as well.

00:12:51:42 - 00:13:27:50

그래서 후천개벽이 이뤄지면 어떻게 된다,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천도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합을 해보자면 중요한 것은 한민족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어떤 세계 나면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소망해 왔다. 이게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끼리 뭐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다.

So, what happens once the “Dawning of the Era After the Coming of Heaven” is achieved?

According to Cheondoism,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will be established. Summarizing this narrativ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Korean Han people have: One, have long hoped for a new world—one distinct from the current reality—a peaceful world where everyone can live happily. That is the first key point. Second, they believed that the realization of this new world could not be achieved by human efforts alone. Instead, they awaited the arrival of a representative of Heaven.

00:13:27:54 - 00:14:05:56

하늘의 대신자가 와서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 후천개벽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한국사람들이 민족적인 그러한 종교심 자체가 하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내가 직접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내가 직접 하늘부모님을 느낄 수 있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의 특징을 보자면 다른 나라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Someone who can help humanity in opening this new world, who can bring about the “Dawning of the Era After the Coming of Heaven.” And third, is that the religious spirit of the Korean people as a nation can communicate directly with Heaven. Koreans believed that they could directly hear the voice of Heaven and personally feel the presence of Heavenly Parent. Therefore, when we examine the unique religious spirit of the Korean people, these three characteristics stand out as key differences from other nations.

00:14:06:01 - 00:14:42:28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가정들도 사실은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한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민족은 사실은 이미 많이 여기서 많이 떠나왔죠. 그런데 하늘부모님이 보내주시기 위해서 참부모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그러한 기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자면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도록 후천개벽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길러졌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대신자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런 대신자가 왔을 때 우리가 직접 하늘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왔다.

What I want to convey is that the blessed families are, in fact, not so different, aren't we? This isn't just something exclusive to the Korean people. While it's true that the Korean Han people have largely moved away from this mindset over time, if we talk about the foundation that Heavenly Parent prepared in order to send the True Parents, they were raised to hope for a new world and the Dawning of the Era After the Coming of Heaven. And they waited for the heavenly representative who could do that to arrive, and they waited in the hope that when that representative came, they would be ab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Heavenly Parent.

00:14:42:35 - 00:15:17:59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런 종교가 어떤 문화로 우리가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 중에서 한국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했냐면 효정이라고 합니다. 효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효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한민족이 생각 하는 그런 효하고, 일본에서 생각하는 효하고 약간 다른니까.

That's the story I wanted to share. Now, moving on, I'd like to explore how these religious ideas have been culturally embedded and passed down. Among the various cultural aspects, the most representative value is something known as hyojeong (filial heart for God). Hyojeong is, simply put, filial piety, but what do you think? Is the filial piety that Koreans think of a little different from the filial piety that Japanese people think of?

00:15:18:04 - 00:16:10:15

네, 감사합니다.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효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효 문화 다른 데도 비슷하지 않을까. 인류의 근간이 되는 거다. 이걸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 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효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희생, 자녀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 한민족의 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Yes, thank you. Do you feel that it's different? Personally, I don't know,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study this. They say that filial piety is different. Since filial piety forms the foundation of family and society, I wonder if such values are universal, serving as the bedrock of humanity. Perhaps they aren't so different after all—at least, that's my initial thought. However, some people do point out specific differences. What do they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filial piety? When Koreans talk about filial piety, it is self-sacrifice, the heart of children who sacrifice themselves to serve their parents, and the heart of loving their parents while sacrificing themselves. That is how they say filial piety of the Korean people is.

00:16:10:20 - 00:16:55:30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섭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3년 동안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묘 옆에다가 이렇게 움막을 짓고 움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왜 생활을 하나면 부모를 잘 못 모셔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나는 죄인이다 해서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매일 문안인사를 이렇게 묘에다가 드리면서 시묘살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께 하는 효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In some ways, people say that this can seem a bit extreme, even frightening. One of their traditions was that after their parents passed away, for three years children quit everything they were doing, built a hut next to the grave and lived in the hut. The reason they lived there was because they felt they didn't serve their parents, so they thought of themselves as a sinner and visited the grave every day like a sinner, this is called the three years of mourning. In fact, they say that filial piety toward parents is not at the rational or reasonable level that we think it is, but rather Korean filial piety is something that goes beyond that.

00:16:55:35 - 00:17:31:34

한국에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이 있는데요.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 중에 논술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청이가 이렇게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이 과연 효인가 얘기를

해봐라. 그런 것이 논술문제에 나올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런 효도한 옛날이야기를 보면 무서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부모가 먹을 것이 없는데 부모가 아파요. 아프신데 이 부모가 고기를 먹어야 낫는다고 합니다.

In Korea, there is the college entrance exam. Among the various entrance exams, there is also something called an essay exam. For example, a question might be, "Discuss whether Shim Cheong throwing herself into the Indang Sea can truly be considered filial piety." There were many stories about this to the point that it was included in the essay questions. If you look at old Korean stories about filial piety, you'll find that many of them are actually quite frightening. For instance, there are stories where the parents have nothing to eat and are ill, and it is said that they will only recover if they eat meat.

00:17:31:38 - 00:18:04:08

그래서 어떻게 하나면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부모에게 구워드려서 부모가 그것을 먹고 낫는다, 그런 옛날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옛날이야기는 그 부모가 아픕니다 똑같이 왜 그리 많이 아프신지 가난해서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부모가 아픕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자기 애기가 자기 부모가 먹어야 될 것을 뺏어 먹고 맨날 우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 이 아이를 죽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So what happens is that the child cuts the flesh from their own thigh, cooks it and serves it to their ailing parent. After eating it, the parent recovers. There is an old story like that. There is another old story where the parents are sick, just like in many others. They are very poor with nothing to eat, and the parents remain ill. Meanwhile, the baby keeps crying all the time because it is hungry and has nothing to eat, constantly taking the little food that should go to the parents. So what happens in the story? It tells of a situation where, in desperation, they decide to kill the child. Such extreme stories also exist.

00:18:04:13 - 00:18:51:19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되는데 부모는 나에게 한 분 밖에 안 계시니, 이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은 죽어도 된다. 약간 이런 옛날이야기도 나와요. 무섭죠. 그래서 저도 좀 무섭다.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그 이것을 연구하신 분이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합리적인 그런 수준의 효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효도한다고 할 때 자기의 생명 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또는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효를 강조를 했는가? Children can be born again, but since I only have one set of parents, in order to be filial to these parents, it's fine for my child to die. There are old stories like this. It's scary, right? I also find them a little frightening. A professor who studied this said that the filial piety in Korea isn't the general, reasonable level of filial piety that we think of, but filial piety that goes beyond that. What he was talking about was why, when Koreans talk about filial duty, do they emphasize filial piety that goes beyond their own life, or even the life of their children?

00:18:51:23 - 00:19:37:07

그 효라고 하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나의 부모다. 육신의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 내가 효도를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기 때문에 이 근본된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부모님께서 한국의 한민족에게 주셨던 그 효정의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사실은 그 조상의 조상을 따라가면 사실은 가장 근원에 계시는 하늘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The concept of filial piety is not about viewing parents simply as human beings who gave birth to me, or physical parents who did something for me, so I repay them with filial duty. It is not a matter on that level. Rather, parents are regarded as the source of one's life. Because they are the root of one's existence, it was taught that it is only natural to give one's life for this root. This is the way Koreans were educated, which is why such stories were prevalent in the past. This story refers to the heart of filial piety that Heavenly Parent instilled in the Korean Han people. This heart refers to the idea that if you trace back through the ancestors of ancestors, at the very root, there is Heavenly Parent.

00:19:37:09 - 00:20:15:08

그래서 그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정도의 마음을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DNA 가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DNA 가 같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순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결과 정절의 문화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피를 더럽히면 안 된다,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Therefore, it is said that the heart to love the very source of one's life was given to the people, and this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This is why it is said that the Korean Han people had such a deep sense of filial piety. Another point, as I mentioned earlier, is the idea of sharing the same DNA.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of having the same DNA is the emphasis on purity. Because the culture strongly stressed purity and chastity, it was taught that the lineage must not be tainted and that lineage must be preserved. These ideas were greatly emphasized.

00:20:15:13 - 00:20:45:54

제가 저는 2 세로 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2 세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따로. 그래서 2 세들은 2 세 수련을 받았어요. 아예 따로 모여가지고 제가 한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따로 저희 2 세 교육이라는 것을 여름방학 때마다 수련을 받았습시다. 그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저희 그때 한 초등학교 6 학년 정도 됐을 거 같아요.

I grew up as a second-generation member, and during my childhood, there was a separate education program for the second-generation members in Korea. We, the second generation, received special training. We would gather separately, and although I don't clearly remember whether it started in elementary school or middle school, I recall that we underwent this education for second-generation members every summer vacation. One thing I still vividly remember is when I was around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00:20:46:03 - 00:21:16:06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는데 원리강의를 막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자 여기 있는 축복가정 2 세들은 전부 다 혈통적으로 축복받고 나왔으니까 원죄 없는 그런 하늘부모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그런데 어디 가서 강간을 당하게 된다든지 성폭행을 당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이렇게 순진한 상태에서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되면



죽어야 된다.

I was very young at the time, and during the lecture on the Divine Principle, the lecturer said something like this: "All of you here, as second-generation members from blessed families, were born without original sin and are children of Heavenly Parent." Then they posed a question: "But what if you are ever raped or sexually assaulted? What should you do?" I was listening in an innocent state, wondering, "What is that person talking about?" And then they said, "In that case, you must die."

00:21:16:11 - 00:21:49:21

그러면서 은장도를 갖고 다니라고 칼을 갖고 다니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아니 그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죽으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때 저도 무섭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교육이 그렇게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한국에서 계속 여성들에게 내려왔던 그런 순결과 정절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순결이라는 게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They went on to say that we should carry a silver ornamental knife, and if we ever found ourselves in such a situation, instead of defending ourselves by harming the attacker, we should use it to take our own life. "You must die," they said. Hearing that, I remember feeling frightened and thinking, "This is scary." That kind of teaching from the lecturer reflected the long-standing cultural emphasis in Korea on purity and chastity, especially for women. It was taught that one's lineage and purity must be protected at all costs, and purity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life itself.

00:21:49:21 - 00:22:22:20

자기 생명보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결이나 정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순결이고 누구를 위한 정절인가, 하늘을 위한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뭐라고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 앞에 부끄럼 없는 내가 되기 위해서 순결과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It is said that from a young age, in Korea, we were taught that one must protect it with their life,

even at its risk. So, when it comes to purity and chastity, the question is, for whom is this purity and chastity for? It is for Heaven. As I said before, in order to live without shame in front of Heaven, it is not a matter of who says something about me or not, but I must keep my purity and chastity to become me who is not ashamed before Heaven, and that is how we have been educated.

00:22:22:25 - 00:23:03:56

그 여성들이 아까 제가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 UPA 학생들 중에서 한국하고 일본생도들이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생도들이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한국 생도냐, 일본 생도냐 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엄마가 일본사람인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엄마가 일본 사람인 사람이 한 70, 80 프로가 엄마가 일본 사람입니다.

About women--I was talking to some people earlier, and we shared many interesting things. Among the UPA students at our school, there are Korean and Japanese cadets, and what is really interesting is that for the students, whether they are Korean cadets or Japanese cadets doesn't really matter. If you say, "Raise your hand if your mother is Japanese." Then, about seventy to eighty percent of them raise their hands, saying their mother is Japanese.

00:23:04:00 - 00:23:15:05

생도들의 엄마가,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서 온 생도들이 엄마가 한국 사람이예요.

What's even more fascinating is that many of the students who came from Japan actually have Korean mothers.

00:23:15:09 - 00:23:48:40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전에 교차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다 일본으로 축복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온 거예요. 일본 생도지만 엄마가 한국사람이고 한국생도지만 엄마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축복가정들은 한민족이라는 게 우리 축복가정이 다 한민족인 거지. 국가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온 생도들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You understand what I mean, right? Because of the cross-cultural blessings from the past, Korean women were all blessed to Japanese members then went to Japan, right? And the students were born there. So, they are Japanese cadets, but their mothers are Korean, and there are Korean cadets, but their mothers are Japanese. Right? Our blessed families are all Korean. The concept of nations doesn't really have much meaning, that's how we're living now. But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 cadets from Japan are here together.

00:23:48:45 - 00:24:04:35

그런데 누가 엄마가 한국사람인지 압니다. 교수님들도 알아요. 말 안 해도. 너구나 네 엄마 한국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But you can tell whose mother is Korean. The professors can often tell who has a Korean mother, even without being told. They'll ask, "It's you, right? Your mother is Korean, isn't she?" Why is that?

00:24:04:40 - 00:24:45:38

한국어를 잘해서? 신기한 게 여기 좀 남자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근데 아버지가 한국사람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사람이어도 애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어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사람인 것은 말해야 알아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한국사람입니다. 어디서 선교를 하고 여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맨날 누구셔 물어보는 데요. 그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국사람인 애들은 한국어도 잘하고

Is it because they speak Korean well? It's funny, there are really a lot of men here but it doesn't matter if the father is Korean. Even if their father is Korean, the kids can't speak Korean. They can't speak Korean. We only know that their father is Korean if they say so. They say, "Actually, my father is Korean. He did missionary work somewhere and is a pastor here," and I ask who they are every time. Fathers don't have much influence, but the kids whose mothers are Korean speak Korean well and

00:24:45:49 - 00:25:23:26

목소리가 일단 큼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그죠? 엄마가 한국 사람인

애들은 일단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크고 그 다음에 분위기 봐서 아무 때나 자기가 얘기합니다. 저희 교수 연구실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냥 어떨 때는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본인인 아이들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조용합니다. 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용해요. their voices are loud. Those of you who are laughing, you understand what I mean, right? The kids whose mothers are Korean, their voices are loud, and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y speak anytime. They come to our professor's office, knock on the door, and sometimes just open the door and walk in. But the kids whose mothers are Japanese never do that. They are very quiet. They are quiet because they don't want to cause any trouble.

00:25:23:31 - 00:26:02:58

그런데 이제 한국 여성들이 그래서 되게 강하다. 무섭다. 그런 얘기 듣는데요. 그게 사실은 한국 여성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의 순결, 정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녀들을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자녀 교육을 되게 잘 시키도록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신사임당 또는 한석봉의 어머니 또는 춘향이 이런 사람들이 춘향이는 실재하는 인물은 아니죠. 하지만 이야기에 보면 자기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However, Korean women are often said to be very strong and scar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s I mentioned earlier, Korean women place great importance on their purity and chastity, and when it comes to raising children, they emphasize that children should live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so they raise their children well. In history, we see figures like Shin Saim-dang, or the mother of Han Seok-bong, or Chun-hyang. Although Chun-hyang is not a real person, in the story, she is depicted as a woman who risked her life to preserve her chastity, isn't she?

00:26:03:12 - 00:26:36:11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그런 순결과 정절 문화를 지키려고 한 것은 사실은 가족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제가 또 요즘에 쓰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논문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요.

Therefore, there is a historical reason why Korean women became very strong. It is because there was a culture of wanting to preserve purity and live according to one's conscience. The reason why the Korean Han people tried to maintain this culture of purity and chastity is that they valued family relationships and placed great importance on family love. Recently, I have been reading many papers comparing Japan and Korea, as I am writing a paper on the topic.

00:26:36:15 - 00:27:13:54

그 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한국의 가족과 일본의 가족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문을 좀 읽었습니다. 그 이에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가족을. 그런데 이것을 한국의 가족하고 일본의 가족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나면 한국은 혈통, 자기의 혈통이 같아야 가족이다 해가지고 혈통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강조가 된다.

Among the papers I have read, there is one that discusse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It refers to the Japanese family as *ie* (patrilineal household). When talking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what is mentioned is that in Korea, family means having the same lineage, so the culture places great importance on lineage.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concept of family is more focused on *kamon* (family crest), meaning people who live together as part of the same community, which is emphasized more.

00:27:13:59 - 00:27:45:31

이런 비교가 나와 있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별로 분위기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논문에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도의 문화, 가정의 문화, 또 부부의 문화, 자녀 양육의 문화가 한국에서 조금 더 강하게 그렇게 된 것은 그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족 사랑을 통해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하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민족의 그런 성향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I have read a paper that makes this comparison. Based on the atmosphere here, it seems that you might not think that way. But in that paper, it was presented like that. So, the culture of filial duty, family, marriage and child-rearing in Korea became stronger because there was a great importance placed on bloodline and with a deep appreciation for it. Through this family love, the

Korean Han people had the tendency to overcome and solve even the most impossible situations. This is the kind of story that was shared.

00:27:45:45 - 00:28:20:37

그러니까 우리 축복가정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라고는 안 해도 축복받아야 한다, 꼭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뭘니까? 축복가정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민족에서 내려왔던 그런 특징들이 사실은 축복가정에서 계승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도 이런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해온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o, what about blessed families? Even though you don't tell your children to study hard, you do tell them that they must receive the Blessing, righ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you want to preserve the lineage of blessed families. That is the mindset, isn't it? In fact, I think this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passed down from the Korean Han people, and it is being carried on in the blessed families. If you look at Korean history, there is a long history of trying to maintain this identity of being the chosen people.

00:28:20:42 - 00:28:59:25

이 한민족이 하얀 한복을 입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하얀 한복을 하얀 옷을 좋아하는 것은 해가 태양이 밝은 것을 좋아하고, 또 순수하고 평화로운 것을 좋아해서 이런 것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 가지고 염색을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얀 한복을 계속 입었다고 합니다.

The Korean Han people really liked wearing white hanbok. That's why we are called the "white-clad race." The reason they liked wearing white clothes is because they liked the bright sunlight, purity and peace, so they wore these clothes. Some people say it was because they didn't have money to dye the fabric, but I don't think that was the case. The reason is tha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Japanese people saw that Koreans wearing white hanbok were trying to preserve their identity as the Korean people, and they continued wearing white hanbok for that

reason.

00:28:59:26 - 00:29:32:08

그래서 일본에서 아예 한국 지배하는 기간 동안 하얀 한복을 못 입도록 하는 법을 만든 적도 있었대요. 그럴 정도로 한민족이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얀 한복을 그만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대표하면서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얀 한복을 계속 입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왜로부터 옛날부터 계속 한민족이 하얀색을 좋아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over Korea, there was even a law made to prohibit Koreans from wearing white hanbok. This shows that it wasn't because the Korean Han people didn't have clothes, but rather because they wore white hanbok so much. They continued wearing white hanbok as a symbol of their national identity and spirit of resistance. Historically, this shows that the Korean Han people have had a tendency to like the color white and purity since ancient times.

00:29:32:13 - 00:30:11:56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한국이 되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사실. 너무 너무 작은 나라죠. 일본보다 작잖아요. 그죠. 일본이 이렇게 섬으로 되어있긴 한데. 이렇게 한국이 사실 작은 나라인데 중국의 그런 침략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침략에 맞서가지고 민족적인 정체성,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 오려고 하는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도 있었죠. 을지문덕 장군도.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전쟁에 나갈 때 중국군하고 약간 이렇게 뭐라고 했죠?

When we look at a map, Korea is actually a very small country. It's smaller than Japan, right? Japan is made up of islands, but Korea is really a small country. So Korea inevitably had to face invasions from China, but there has been a history of trying to preserve the identity of its people and national independence against such invasions. There was General Eulji Mundeok of Goguryeo, right? But what's interesting is that when these people went to war with China, what did we just say?

00:30:12:01 - 00:30:39:21

규모가 수적으로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략을 써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전략을 짜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씨,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기도를 했다 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전투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The scale was not sufficient in terms of numbers. But using various strategies, they fought the war. While we make efforts and devise strategies, in order to carry them out, the weather and other circumstances must align, so it is often said that they prayed to the heavens. In other words, before going into battle, we do everything we can in terms of strategy, but after that, the rest is up to the heavens to help them.

00:30:39:26 - 00:31:13:55

하늘이 도와주셔야 된다 라고 기도를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을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역사해 주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민족이 그런 역사를 많이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광개토대왕도 있는데요.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설명을 하면 제가 이걸로 돌리는 건지 알았더니 돌려주시는 분이 넘겨주시는 분이 있네요.

They prayed that the heavens would help them. Isn't this something that we often do as well? We make all the efforts we can, we do everything in our power, and then we hope that the heavens will help us, right? In fact, the Korean people have a long history of this. There is also King Gwanggaeto the Great. In the case of King Gwanggaeto the Great--now I understand how this works. When I explain it this way, I thought I was the one clicking "next," but it turns out there's someone clicking for me

00:31:14:00 - 00:31:47:57

그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도 만주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힌 게 나오는데 만주까지 영역을 넓혔던 것이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그런 자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나라라고 하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주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굉장히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하늘부모님이 주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In the case of King Gwanggaeto the Great, it is mentioned that he expanded his territory all the way to Manchuria. However, the reason for expanding into Manchuria was not to invade China, but to demonstrate our country's sovereignty and to protect the territory of our nation. So, the Korean Han people, in any situation, have worked hard to develop their identity as the chosen people given by Heavenly Parent and to strengthen the sovereignty of our nation.

00:31:48:02 - 00:32:18:28

고려시대에는 강감찬이라는 장군도 있었고 그리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팔만대장경을 쓴다는 게 사실 만든다는 게 어려운 건데, 이것 왜 하는 거냐면 하늘이 역사해주기를 바라 라는 마음으로 이런 경전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 기간에.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래서 사실은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국의 역사 속에 여러 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re was also General Gang Gam-chan and the Tripitaka Koreana, which is very difficult to create. The reason for making this was with the hope that the heavens would help them, as they formed this scripture during the wartime. These efforts were truly our own. In fact, in the national anthem, it says "God will protect us," right? This has appeared several times throughout Korean history.

00:32:18:33 - 00:32:51:13

이순신 장군도 일본이 침략을 해올 때 거북선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수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에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하나면 나가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있는데요. 일기에 어떻게 있냐면 날씨나 상황이 이렇게 짠 전략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부모님의 가호를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신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When Japan invaded, Admiral Yi Sun-sin created the turtle ship and did many things, but he was severely outnumbered. There is a diary that Admiral Yi Sun-sin wrote before he went out. In the diary, he prayed for the protection of Heavenly Parent so that the weather and the situation would allow him to carry out all the strategies he had planned. He also had an experience where

a spiritual being appeared and gave him guidance, telling him what to do.

00:32:51:25 - 00:33:28:59

그런 게 일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 자체가 우리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약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목회자들 앞에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 같은데. 대만은 되게 일본을 좋아하는데 한국은 40 년이나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에 전혀 동화가 안 됐어요.

All of this is written in his diary. So, the Korean Han people,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their sovereignty, were a people who always prayed to heaven. It wasn't just Admiral Yi Sun-sin; during the Imjin War, many people did the same. I'm not sure if it's appropriate for me to give this example, especially in front of Japanese church leaders, so I am being cautious. I think I mentioned this briefly last time, but Taiwan really likes Japan, while Korea, despite being under Japanese rule for forty years, never assimilated into Japan at all.

00:33:29:04 - 00:34:01:40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배를 받으면 그 지배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이렇게 개발시켜 주는 건가.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임진왜란 때에도 이게 일본한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온 민족이 다 나와가지고 오히려 왕은 도망을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They are a very unique people. So, when Korea is under foreign rule, they don't think about how good the rule is, how much it develops its people, or what benefits it brings to them. They don't think about such things. Even during the Imjin War, Korea was in a situation where it was inevitable that it would lose to Japan. But what happened? The entire nation came together, but the king is the one that fled. When war breaks out and the king flees, what happens?

00:34:01:44 - 00:34:33:44

그럼 국민들은 왕이 도망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새로 오신 분한테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면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스님들, 스님들은 원래 살생 금지인데 스님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의병이라고 해서 자기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역사 속에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Since the king fled, the people could have said, "We will just follow the new ruler," but there was none of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king. Instead, people said, "I will protect this country," and monks, who are traditionally forbidden from taking life, went into battle. Also, in every village, there were many people who volunteered to protect the country, known as the Righteous Army. This is something that is extremely rare in world history, and it continues to appear throughout history.

00:34:33:59 - 00:35:19:06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왕조의 왕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를 무조건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임진왜란 때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제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40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40년 동안 지배하는 동안 많은 한국 사람들을 개조, 의식 개조라고 하거든요. 의식을 개조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군을 조직을 하고 자기 집안에 있던 노비들을 다 면천을 시키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 이회영이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So, during the Imjin War, it wasn't the king of the ruling dynasty who protected the country, but the people themselves who unconditionally protected the nation. This history is well recorded. Of cour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 many independence fighters emerged. Even though Japan ruled Korea for forty years, during this time, they tried to reform the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which was called "consciousness reformation." Despite this, many independence activists organized independence armies and freed all the slaves in their households, and among those who fought for independence, this person named Lee Hoe-yeong is very famous.

00:35:19:10 - 00:35:55:57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 가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특히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요즘에 한국에서는 평화운동가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이 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할 때 이 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동양의 평화를 지키겠다 라고 하고 명분을 만들어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다.

People like Ahn Jung-geun sacrificed their lives for this movement. Especially Ahn Jung-geun, who is considered a terrorist in Japan, is actually regarded as a peace activist in Korea today. When he assassinated Ito Hirobumi of Japan, what he said was that, during Japan's rule over Korea, Japan said that it would protect the peace of the East with a peaceful heart, creating a justification for its actions. However, in reality, the situation was not peaceful.

00:35:56:02 - 00:36:36:32

굉장히 무력으로 하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 서양에서 한국을, 동양을 침략하는 것을 일본이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걸 쓰고 이렇게 글을 썼고요. 평화운동,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DNA 에 평화를 원하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평화를 지키면서 각각의 민족성을 잘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They were doing it very forcefully and it was wrong. Japan had claimed that it would protect Korea and the East from Western invasions. However, it was not doing so. He wrote a theory called the "Theory Oriental Peace," saying that to maintain peace in the East, such actions were not acceptable. He also wrote books discussing peace movements and various other topics. So, the Korean Han people, in their DNA, desire peace, and they have no intention of dominating other nations. Instead, they believe in maintaining peace while respecting the individuality of each nation.

00:36:36:37 - 00:37:16:40

유관순 열사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순결한 정신으로 이런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신채호 라고 하는 분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한국이 왜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해가지고 식민사관, 역사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때려야 말을 듣는다 혼자 뭘 같이 모여서 뭘 못한다, 싸우는 걸 좋아한다.

You are probably familiar with Yu Gwan Sun, who, at a very young age, 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with a pure spirit. She was a Christian who fought for independence. There is a history of her participation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a Christian. Shin Chae Ho, another figure, when Japan ruled Korea, focused a lot on questioning why Korea should be under Japan's rule. He worked hard to change the colonial viewpoint and historical perspective. He argued that the Korean people were a nation that needed to be beaten to listen, incapable of organizing on their own, and fond of fighting.

00:37:16:45 - 00:37:47:28

굉장히 문제가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일제시대 내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채호, 이분이 그런 거 아니다. 한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의 기원은 단군신화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거고 굉장히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봤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재해석하는 그런 걸 하신 분이 신채호라고 하신 분입니다.

Because the Korean people were considered a very problematic nation, Japan promoted the idea that it had to govern Korea. This was a message that was heavily emphasiz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owever, Shin Chae-ho argued that this was not true. The Korean Han people are not like that, and the origin of the Korean Han people begins with the Myth of Dangun. The Korean Han people have a strong national identity, and to maintain and develop this identity, we need to examine the efforts made throughout history to preserve it. Shin Chae Ho is the one who reinterpreted history in this way.

00:37:47:33 - 00:38:23:35

이런 여러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한민족이 자기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이 노력의 근본은 저희가 앞의 안연희 교수님 강의를 잘 들으셨겠지만 천손사상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현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가지고 국가를 지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축복가정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ve mentioned several people,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Korean Han people have made great efforts to preserve their own identity. The foundation of these efforts is, as you must have heard from Professor An Youn-hee's lecture, the idea of being the chosen people, which is a national identity rooted in the Heaven's Descendant Thought (belief of being descendants of Heaven). Because of this identity, the Korean Han people tried to protect their country beyond the practical interests of whether it is beneficial or not, and we have made efforts to preserve our identity as the chosen people. I think we can say the same thing to blessed families.

00:38:23:40 - 00:38:54:05

축복가정이 저희가 먼저 참부모님을 알았고, 축복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좋아서 우리가 이것 믿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거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가지고 우리의 천일국을 지키기 해서 지금 노력해야 되는, 또 선민으로서의 우리의 축복가정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과 심정문화인데요.

The blessed families are the ones who first came to know True Parents, and we are making efforts to preserve our identity as blessed families. Next, if we believe this because we have realistic interests, what benefits do we gain from believing this? I think we need to transcend realistic interests and make efforts to protect our Cheon Il Guk, and to maintain our identity as blessed families as the chosen people. Lastl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creativity and the culture of heart that the Korean Han people possess.

00:38:54:05 - 00:39:31:44

이거는 안연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한글입니다. 한글이 되게 특이한 그런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은 문자가 없냐. 일본도 문자가 있는데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한글이 좀 더 특이한 것은 만든 사람이 있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도 누가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This seems to be something that Professor An Youn-hee mentioned. Among Korean cultur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lements is the Korean alphabet, Hangeul. Hangeul has a very unique writing system. Then, you might ask, "Does Japan not have a writing system?" Japan does have a writing system, of course, but what makes Hangeul particularly unique is that it was created by someone. Sejong the Great created it. There is no record of who created any language, but this is a language that was created through scientific research.

00:39:31:56 - 00:40:10:49

그래서 한글이 모든 소리를 다 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자기는 한자 쓰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한문을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야, 이거는 잘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그런 한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늘부모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실은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글이다.

Hangeul was created to be a script that can write and express all sounds. But why did Sejong the Great create this? He could have used Chinese characters, but it would be too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to study Chinese characters and write our language, so he thought, "This won't work." He said that Hangeul was created out of love for the people so that all the people could write. In fact, in some ways, it was Heavenly Parent who gave him the idea, and Hangeul was created out of love for the people.

00:40:10:54 - 00:40:30:47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다 원리강론이 나와요. 원리강론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리강론이 쓰여졌던 1950년 60년대에는 한국이 무슨 한글이 세계의 언어가 된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런 걸 실감하셨습니까?

So, if you look, all of this is discussed in the Exposition of the Divine Principle. However, in the 1950s and 60s, when the Exposition of the Divine Principle was written, did people really feel that Hangeul would become a world language and that Korea would become the center of the world?

00:40:30:52 - 00:41:05:33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한국어 어학당이 생기고 사람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원리 강론의 쓰여 있던 이야기들이 이뤄지는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한글이 있냐? 이 한글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글이 만들어졌다.

I wish that were the case. I think Koreans hoped for that as well. We are now witnessing the history of that coming true. Today, there are Korean language schools around the world, and people are singing along to Korean songs. We are living in a time where the contents written in the Divine Principle are coming to fruition. But why is Hangeul important here? It's because Hangeul was created as a script to express God's bitter sorrow and deep heart.

00:41:05:38 - 00:41:54:39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다. 과학기술 중에서도 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을 연구하는 게 발전이 되었고, 시간을 연구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쇄술이 되게 발달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민족이 이 인쇄술이 발달되었는데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달되었냐면 경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전을 기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굉장히 서양에 비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개발된 곳이 한국입니다.

We understand it like this. Another thing i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eveloped greatly. Among the fields of science, astronomy, which is the study of the heavens, has developed significantly, and the study of time was more advanced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other thing is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As you all know, the Korean people developed printing technology. Why did printing technology develop? It was because of the love for truth, as there was a desire to record the scriptures and pass them down to future generations. This is why printing technology was developed faster in Korea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00:41:54:45 - 00:42:37:31

그래서 이런 그 인쇄술이 발달된 것이라든지 한글이 만들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것을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배층들이 문자를 공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른 나라에서는 문자를 자기들끼리만 알고,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다 지식이 공유되는 것을 안 좋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전되었다.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and the creation of Hangeul were driven by a strong desire to share the truth with future generations so that all the nation could share it together. I'm not sure if you know this, but in many other countries, the ruling class did not want to share their writing system. In other countries, the elite kept the writing system to themselves, and they were not pleased when the common people learned it, as it meant that knowledge would be shared. However, Korea was different. The culture here was not about keeping knowledge to the elite; it was about studying, sharing, and passing on the truth to everyone, and that's why these things developed.

00:42:37:36 - 00:43:16:25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기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농업기술이 발전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자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청자 그리고 조선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화려한게 나와있는데요. 그 책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본이 도자기가 훨씬 발달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도자기가 정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가보면 외국도 굉장히 도자기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And since there was a lot of farming, agricultural technology, which could change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developed. Let me talk briefly about ceramics. There was Goryeo celadon and Joseon white porcelain. Although there are some elegant examples here, I'm not sure what the booklets show. They say that Japan's ceramics were much more developed, right? Japanese ceramics are truly beautiful. And when I travel abroad, I see that ceramic technology has developed greatly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with many very beautiful and exquisite pieces.

00:43:16:35 - 00:43:51:14

그런데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고려청자, 고려청자가 너무 예쁜데 이 청자 다음에 더 화려하게 발전될 것 같았는데 조선백자는 이런 것보다 아무 무늬도 없는 그런 백자가 사실은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이렇게 무늬를 넣고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게 발전이 되면 점점 발전되면 더 화려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조선시대에 오면서 그게 딱 멈추고 백자로 가게 됩니다.

However, a unique feature of Korean ceramics is that, after the beautiful Goryeo celadon, instead of continuing to develop into more ornate designs, Joseon white porcelain emerged, often with no patterns at all. This shift is quite distinctive. Despite the potential for more elaborate designs with techniques like inlay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trend stopped and shifted to plain white porcelain.

00:43:51:14 - 00:44:34:37

이 백자가 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양심에 따라서 사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백자가 그렇게 아주 깨끗한 백자 만드는 것이 개발 발전이 많이 되는 그런 문화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런 하늘을 향한 순결한 정신을 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한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그 정체성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참부모님 보내주시기 위한 준비의 기반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받아서 축복가정들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문화적 정체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The development of the plain white porcelain in the Joseon Dynasty reflects a mindset focused on living with integrity. The emphasis was on purity and cleanliness, symbolizing a heart free of distractions. This culture was about seeking a pure spirit aligned with the heavens. In conclusion, the identity of the Korean Han people, I believe, laid the foundation to send our True Parents. Now, as blessed families, we are tasked with embracing and embodying that cultural identity while attending True Parents.

00:44:34:42 - 00:45:13:51

대망사상,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참부모님 모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 그리고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문화. 그래서 이 하늘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 가면서까지 하늘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고, 우리가 정체성, 하늘부모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 정체성을 지켜오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하늘부모님이 역사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온 심정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Great Hope Theory" is rooted in our religious spirit to build that world while attending True Parents and the culture of attending Heavenly Parent. To attend Heavenly Parent, there has been a culture where we are willing to sacrifice our lives. Our identity as a chosen people, the nation selected by Heavenly Parent, has been preserved through our history. In order to do that, we put in our best efforts, put in all the effort we can, and there was a culture of praying for Heavenly Parent to work, and there was a culture of heart that creatively developed that.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it in this way

00:45:13:56 - 00:46:01:28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좀 했고요. 보시면 제가 한국 목회자들한테는 처음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사실은 교수들이 할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학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국 역사를 다 연구해 보니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앞으로 우리가 축복가정들이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일본 목회자들이 다 계신데 여러분께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식구님들에게 많이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Yes, this concludes my lecture. When I first gave this lecture to Korean church leaders, I mentioned that this lecture should actually be given by church leaders, not professors. This is not an academic matter, nor is it about researching Korean history and presenting findings. What we are talking about is what True Parents have said about the Korean Han people and what we, as blessed families, should do in the future and how we should live. In fact, since there are Japanese church leaders here, I think it would be good if you could develop it further and convey it to your members.

00:46:01:33 - 00:46:03:59

이것으로 저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 this, I will end today's lecture. Thank you very much.